

필리핀, Arroyo 대통령 재정적자 축소가 당면과제

□ Arroyo 대통령 재선에 성공

- 지난 5월 10일 필리핀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인 Gloria Macapagal Arroyo 대통령이 약 90만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하였음.
- 같은 날 실시된 24석의 상원의원 중 12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도 Arroyo 대통령을 지지하는 6명의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여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됨.
- 선거전 여론조사에서는 영화배우인 Poe 후보의 지지율이 Arroyo 후보를 압도하였으나 선거기간 중 정치적 경험이 없는 Poe 후보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면서 현직 Arroyo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임.
- Arroyo 대통령은 2001년 1월 에스트라다 前대통령의 실각으로 인해, 부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국정을 운영하여 왔으며, 필리핀의 대통령 임기는 단임 6년제이지만 선거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였음.
- 이번 재선으로 새로운 임기 6년을 맞이하게 된 Arroyo 정권은 재정적자 축소와 정치·사회 안정의 과제를 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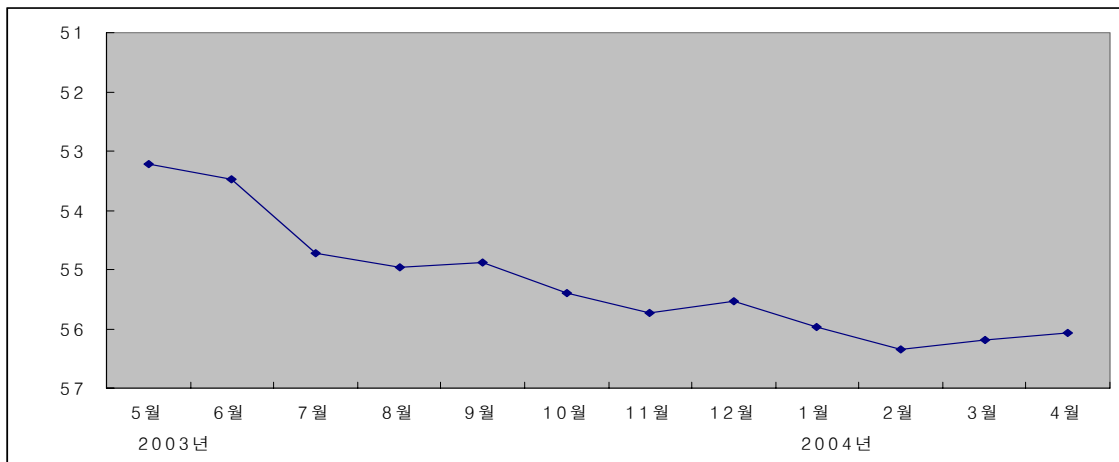
□ 해외차입을 통한 재정적자 보전은 한계

- 필리핀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차입을 통하여 적자를 보전해오고 있음. 2월의 5억 달러 11년물 글로벌본드 발행에 이어 3월에는 2억 달러의 제로쿠폰본드를 발행하였고, 세계은행, ADB로부터의 프로그램 용자는 용자 조건 등의 이유로 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재정적자 보전에 따른 대외채무증가는 필리핀 경제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필리핀 정부가 관세율 인하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세가 낮은 주변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면서 동국에 대한 FDI 유입액은 낮아지고 있음.
- 또한 정부 세입의 30%가 채무상환용으로 충당되면서, 빈곤대책과 사회인프라 정비등의 경제개발·소득재분배 정책에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그 결과 필리핀의 중상위층과 빈곤층 간의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국내정치 불안정의 최대원인이 되고 있음. 역대정권은 빈곤층에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주장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필리핀의 세수 확대¹⁾를 위해서는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금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세금조사센터(NTRC)는 1998~2002년 사이의 소득세·부가가치세의 누락징수액을 6,350억 페소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기간의 재정적자는 6,560억 페소로 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적자액의 97%가 보전 가능한 상태임.
- 한편, 최근 폐소화의 지속적인 가치하락은 동국의 정치·사회 불안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해결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작년 7월과 11월의 쿠데타 미수사건과 재무부 장관의 사임, 배우 출신인 Poe 씨의 당선 가능성 대두 등으로 폐소화는 약세를 보여왔음. 폐소화

1) 필리핀의 세입액은 GDP 대비 약 14.4%로 한국의 22.7%, 베트남의 24.3%, 말레이시아의 23.1%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약세는 대외채무상환 부담 증가를 가져와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음.

<그림> 필리핀의 최근 1년간 달러당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매달 월말 기준.

전문연구원 도현철 (☎3779-6676)
E-mail : loki@koreaexim.go.kr